

통합돌봄 지속성 · 전국화 추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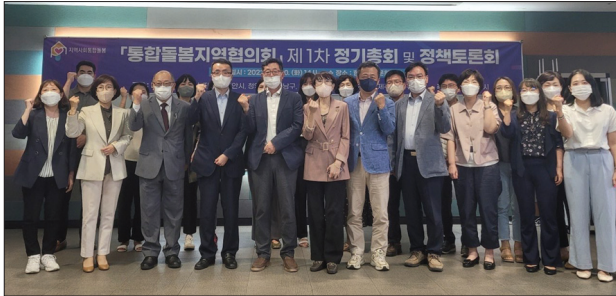
통합돌봄 지역협의회,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제1차 정기총회 · 정책토론회 가져

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정부부처 · 기관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전주에 모여 사업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구원 관계자, 보건 · 의료 · 복지 분야 전문가, 통합돌봄사업 추진 수행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해온 전주시와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12개 지자체가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전국화 추진을 위해 자체 결성한 모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정례화를 위한 회칙 제정과 자문위원 구성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이어 2부 행사로 김윤 서울대학교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구원 관계자, 보건 · 의료 · 복지 분야 전문가, 통합돌봄사업 추진 수행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와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덕희 충북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장은경 전주시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윤 교수는 “재정 통합기반 노인지역돌봄체계 혁신과 통합돌봄사업의 방향”이라는 발제

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에 편중된 노인돌봄체계의 비효율성과 노인돌봄체계(재정, 대상, 서비스)의 분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정을 지자체의 총액기반 재정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과 노인돌봄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시 · 군 · 구 공무원들은 지난 4년 여간 추진해 온 통합돌봄사업을 공유하고, 통합돌봄사업의 지

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의 ‘케어안심주택’ △충북 진천군의 ‘퇴원환자 병원연계’ △광주광역시 서구의 ‘AI기반 스마트 통합돌봄’ △전주시의 ‘건강-의료안정망’ 등 16개 시 · 군 · 구별 특색에 맞게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도한 융합형 통합돌봄(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공모대응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역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법 제정과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질적 편중화 및 전국화 확대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돌봄의 지속성은 분명 확보돼야 하는 만큼 전국화 추진 및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전주시, 9~11월 하반기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 운영

전주시가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와 함께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2022년 하반기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건지도서관 등 9개 시립도서관에서는 9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중도서관과 금암도서관에서는 각각 9월과 10월에 ‘주말 가족과 함께 책 놀이’ 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초록우산작은도서관과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등 2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책꾸러미를 받고 책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의 관계, 책놀이, 자녀 양육방법 등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특강도 운영된다. 하반기 부모

교육 특강은 오는 16일 금암도서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 시립도서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운영해 자원활동가의 실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교육을 통해 배출된 자원활동가들은 향후 9개 도서관에서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의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본부장은 “각 도서관별로 책놀이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해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즐겁게 놀면서 책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60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지역 취약계층 발굴 · 지원 방안 모색 협력

희망조약돌 ·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업무협약

아동후원단체인 사단법인 희망조약돌(이사장 이재원)은 30일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노선덕)와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원 연계 및 지역 취약계층 발굴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희망조약돌은 또 이날 전주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의류 1200벌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재원 사단법인 희망조약돌 이사장



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달하는 계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NGO단체 희망조약돌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 자립 지원 ‘맞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한 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신질환자 전용 직업체험 및 연습 공간을 설치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정신질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실태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평균 34.9%)에 훨씬 못 미치는 11.6%로 나타났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의 경우 전국에 19곳이나 있으나, 정신질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용 직업 체험 및 연습 공간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양기관이 상호교류를 통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당사자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예방, 정신질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jmind.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